

같이 보기

: 한라산 등반기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한라산의 기운을 받아오다

글 박진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이하 충북센터)의 확장 이전 및 종합건강검진센터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충북센터 사내기자 겸 충북센터 확장 이전 TF 팀원인 필자가 직접 한라산 백록담에 다녀왔다. 충북센터는 특검 지정 인원 6만 명의 특검 기관으로 일 평균 방문자대비 검진 장소가 협소하고, 부족한 주차장으로 센터 건물 앞 도로는 늘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상태였다. 이에 충북센터 직원들은 다방면으로 대안을 찾아왔고, 현재 새로운 사업 부지를 물색해 충북센터 확장이전을 위한 TF팀을 가동 중이다. 사내기자인 필자 역시 해당 TF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수검자들에게 좀 더 양질의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충북센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주도 한라산을 다녀온 후기를 전한다.

9월 16일 금요일 저녁, 퇴근과 동시에 등산복을 챙겨 바로 청주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일정은 금요일 밤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뒤 17일 토요일 새벽에 한라산 등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업무 후 곧바로 제주도로 출발하는 것이라 다소 부담이 있었지만, 응원하러 온 아내와 아들의 힘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어느덧 9시. 다음날 새벽 등산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관광보다는 휴식이 우선순위로 생각해 곧장 숙소로 향했다. 다음날 새벽 4시, 이른 기상을 하여 등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한라산은 등산코스별로 제한된 인원만큼 사전 신청으로 등산객을 받고 있다. 필자가 선택한 등산코스는 성판악 탐방로 코스로 하루 입장객 1,000명만 제한적으로 받고 있어 일찍 출발했다. 한라산 동쪽 코스인 성판악 탐방로는 초보자들도 오



르기 쉬운 코스면서 한라산 탐방로 중에는 가장 긴 9.6km 코스이다. 등산 시간은 왕복 9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이며, 성판악 관리사무실(해발 750m)에서 출발하여 속발, 사라오름 입구, 진달래밭 대피소를 지나 정상(동능)으로 이어진 코스이다.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큰 무리는 없으나, 왕복 19.2km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장기간이 예상되는 코스이다. 이 탐방로는 백록담 정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숲으로 형성되어 있어 삼림욕을 즐기며 탐방하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

탐방안내소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등산 준비를 하며 입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님과 함께 온 초등학생부터 직장 친구들, 5~60대 장년층 등산객까지 실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한라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간단한 안전 설명을 듣고, 새벽 5시 30분 입장 문이 열리면서 등산이 시작됐다. 사전에 탐방 예약한 QR코드를 찍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정상에 올라 인증사진을 전송하면 등산이 끝난 후 탐방사무실에서 인증서 출력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인증서를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겨 더욱 힘이 났다. 첫 출발 직후에는 수많은

같이 보기

: 한라산 등반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작해서 앞뒤로 옹기종기 붙어서 등산을 하였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거리가 벌어졌고 어두운 새벽, 손전등 불빛을 의지하며 등산을 이어 나갔다. 정상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 30분. 필자는 4시간 안에 정상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1시간을 쉬지 않고 올라가 첫 번째 휴게소인 속밭 휴게소에 도착했다. 간단히 간식으로 허기를 채우고 바로 이어진 2차 등반, 목표는 진달래밭 대피소였다. 속밭부터 진달래밭 대피소까지의 구간은 성판악 탐방로에서 가장 난이도가 심한 코스로 경사진 도로와 돌길로 체력도 가장 많이 소모되는 구간이다. 시간은 어느덧 7시. 주변이 점점 밝아오면서 비로소 보이는 구상나무 숲, 아침 안개와 떠오르는 햇빛이 감싸고 있는 숲속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눈



66

주변이 점점 밝아지면서 비로소 보이는 구상나무 숲. 아침 안개와 떠오르는 햇빛이 감싸고 있는 숲속은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덕분에 등산하는 것이 힘들기보다 힐링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99



앞에 펼쳐진 풍경에 등산하는 것이 힘들기보다 힐링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하니 주변은 나무보단 하늘이 더 많이 보이고, 기온도 선선해졌다. 진달래밭 대피소에 도착한 시간은 8시 10분.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체력은 있는 대로 바닥나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기도 했다. 이내 약 1시간 30분을 더 오르니 저 멀리 한라산 정상이 보였다. 먼저 정상을 보고 내려오는 등산객도 있었다. 안개가 심해 백록담은 보이지 않고 정상에 있는 비석만 보고 내려간다는 말씀에 다소 실망했다. 그래도 충북센터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금 힘을 내서 올라가 정상을 직전에 둔 그때, 시원한 바람과 함께 푸르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하루 사이에도 몇 번씩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는데, 아침엔 구름이 짙어 어

두운 하늘만 보이다 필자가 정상에 다다른 10시경엔 아주 청명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른 동능 정상. 파란 하늘과 선명히 보이는 백록담,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싼 운해로 백록담은 하늘 위의 작은 섬처럼 보였다. 지난번 한남노로 많은 폭우가 내려 큰 피해를 주었지만, 덕분에 백록담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이 고여 있었다.

필자가 찍은 백록담 사진을 보면,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평소의 백록담 담수량 사진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담고 있어 그 감동은 배가 되었다. 정상에서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낀 후 준비해 간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피켓을 넓게 펼쳤다. 그리고 충북센터 직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라산 백록담에 그 마음을 전하고 성공적인 확장 이전을 기원하였다. 힘들게 정상에 올라 회사의 로고를 펼치니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고, 격려를 해주시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덕분에 회사 홍보는 참 잘 된 것 같다. 정상에 오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벽찬 감동을 뒤로 하고, 하산하니 어느덧 오후 3시.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 백록담을 보고 청주로 복귀하니,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충북센터의 이름을 백록담 앞에서 꺼낼 수 있었다는 뿌듯함에 최고의 산행이 되었다. 보기 드물게 담수량이 풍부했던 백록담의 기운을 받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되고자 사진으로나마 백록담의 기운을 전한다. 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운이 닿아 모두가 평화롭고 건강한 밝은 미래가 다가오길 기원한다. ☺

